

박지원 비대위장에 전주 현안 건의

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 전통시장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 등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와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국민의당에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9일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현장 탐방차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전주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김 시장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당초의 조성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총 4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는 15% 수준인 67명에 그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3.5%에 불과하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당론으



“내 아기 어딨나?”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페리데자 동물원에서 8일(현지시간) 암컷 판다 하오하오가 지난 6월 2일 출산한 아기 판다를 바라 보고 있다.

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전통시장 내 무허가건물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당이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국 전통시장의 상당수의 상인들은 자연 발

생된 전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관계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합법적인 증·개축마저 불가능해 화재 등 안전문제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재 기자

차대통령 “사드, 무대안 비판·갈등 국민 위기로 내몰아”

박근혜 대통령은 9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야권을 겨냥해 “대안없이 비판과 갈등으로 국민을 반복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저는 그 외에 북한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안보 문제마저도 천반의 논리에 갇혀 있고, 각기 다른 이념과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 특별감찰 범위 임명 10년 전까지로”

김관영 의원,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실질적 조사권도 개정해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혐의가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임명 이후로 한정되어 있는 특별감찰 범위를 공직 임명 10년 전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은 9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특별감찰 대상에 해당 신분관계 발생 10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이 해당 신분관계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감할 기간이 제한돼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의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에 단단히 드라이브를 건 모양새다. 특히 공직 임명 10년 전까지 대상을 확대해 파급력은 더한 모양새다. /신경영 기자

그러나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찰 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 조사권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별감찰관과 민정수석실 양쪽에 감찰 권한이 부여돼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도 제대로 조사될지 두고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일단 임명 이전에 비위 행위를 캐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도 많다”면서 “현재는 범위를 확대해도 출석, 답변 등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계좌추적 등 실질적인 조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신경영 기자

도 ‘시·청각장애이용 TV’ 무료보급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전북도가 ‘시·청각장애이용 TV’를 무료로 보급한다. 9월 도에 따르면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청각장애이용TV 무료보급사업’을 벌인 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에 등록 된 시·청각장애인 및 눈·귀 상이등급자에게 음성안내와 자막설정 기능 등이 포함된 TV와 전용리모콘을 무료로 보급

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우선 보급되며, 장애등급과 나이 등을 고려해 보급된다.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청각장애인이 편안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게 돼 사회와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고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 당선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 공모에서 당선된 건축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이에 따라 설계를 둘러싼 표절사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의 표절의혹을 제기한 정삼모 건축사는 9일 전주지검에 A건축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설계를 표절한 건축사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당한 A건축사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설계 공모 심사에서 당선자인 ‘무지개 별 나라’를 제출한 건축사다.

앞서 정 건축사는 A건축사가 자신이 설계한 경기 동두천의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모방한 설계를 제출해 공모에 선정됐으며 표절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건축사는 고소장을 통해 “A건축

사의 설계는 내가 3년 전에 설계해 공모에서 당선된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과 유사하다”며 “두 작품은 분야 양 컨셉은 물론이고 중정의 위치와 형태도 동일하다. 또 전체적인 배치 형태도 유사해 설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절에 대한 의심으로 전북도에 인원을 신청했으나 도에서는 유사성이나 표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 담당부서는 표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건축사는 표절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직접적인 별의 형상을 차용해 디자인했으나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자연에서부터 연결되는 무지개의 흐름으로 별의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며 “두 설계는 재료 및 모서리의 처리가 다르고 선의 연속성과 흐름도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뉴시스

안민석·이상민, 정봉주 광복절 특별사면 촉구

정봉주 구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19대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은 9일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근혜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8·15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며 “사면을 계기로 대통령의 정치로 이어지길 바라며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됐던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반드시 포함시킬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추가조작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 징역 1년과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가혹한 판결을 받았다”며 “유독 정봉주 전 의원만이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됐고 현재 정 전 의원은 1년 동안 복역했지만 피선거권 제한은 아직도 6년반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해 국민대통합 차원의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함께 나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진폭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